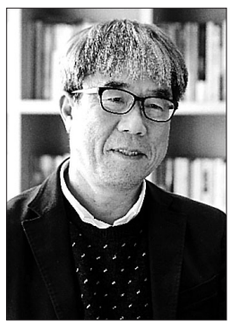
권오민 교수 대정학술상 수상

26일 시상식… 장학생 6명도 선정



대정장학재단(이사장 황선태)은 8월 26일 서울 갤러리아포레에서 권오민 경상대 교수〈사진〉에게 대정학술상을 수여했다. 또한, 대정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에도 장학금을 전달했다.

학술상을 수상한 권 교수의 논문은 지난해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에서 발간한 〈동아시아불교문화〉 제21집에 수록된 '원효교학과 아비달마-화쟁론을 중심으로' 이다.

또한 권 교수는 〈유부 아비달마와 경량부철학의 연구〉 〈아비달마불교〉 〈인도철학과 불교〉 〈불교학과 불교〉 〈상좌 슈리라타와 경량부〉 등 저서와 〈아비담팔건도론〉 〈아비달마발지론〉 〈입아비달마론〉 〈아비달마장현종론〉(전2권) 〈금칠십론〉 〈승종십구의론〉 〈아비달마구사론〉 등 역서가 있으며, 8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최승현(숙명여자대 의약과학과 2), 박상아(한양대 의학과 2), 강소율(동의대 경영학과 3), 황희원(성균관대 경제학과 3), 지호재(동국대 식품생명공학과 3), 이나겸(연세대 경제경영학과 3) 등이 장학금을 받았다.

한편, 대정장학재단은 지난 2013년 불교학 진흥과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됐다. 매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게재된 불교 관련 논문 가운데 우수논문을 선정해 학술상을 수여하고, 1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탈종교화 시대, 종교 의미를 논한다

조계종 포교원 · 불광연구원 9월 3일 연찬회

탈종교화 시대에서 종교의 의미와 역할을 전망하는 연찬회가 열린다. 연찬회에서는 불교와 가톨릭, 개신교의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 현 상황을 전망한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과 불광연구원은 오는 9월 3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탈종교화시대, 종교의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조성택 고려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는 이번 연찬회에서는 정경일 새길기독사회문화원장의 '종교 이후의 사회적 영성', 김근수 해방신학연구소장의 '가톨릭 진짜 잘 하고 있는가', 김진호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의 '교회 국경을 넘는 신자들, 종교 국경도 넘다 - 탈종교시대 새로운 종교성', 은유와마음연구소 대표 명법 스님의 '위기의 한국불교, 전통과 근대, 탈근대 가로지르기' 등이 발표된다. 발제 이후에는 지정토론자 없이 모든 대중이 참여하는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연찬회에 대해 주최 측은 "이번 연찬회는 특정 종교에 국한된 호교론적 논변이 아니라 불교, 천주교, 개신교, 종교학자가 함께 참여하여 각 종교가 직면한 상황을 짚어보고자 한다"면서 "이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종교의 의미는 무엇이며 탈종교화로 치닫는 상황에서 종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초기불교 논리와 대승불교 화엄' 고찰

불교학연구회, 9월 3일 추계 학술대회

불교학연구회(회장 최종남)은 오는 9월 3일 오후 1시 동국대 충무로영상센터 227호에서 '초기불교의 논리와 대승불교의 화엄'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백도수 능인대학원대학 교수의 '논사의 논모에 대한 고찰'을 비롯해 김근중 동원과학기술대 교수의 '니까야 위주로 본 초기불교 수행체계에서 괴로움 소멸에 대한 고찰 - 초전법륜경 중도와 대념처경의 사념처를 중심으로', 정희경(동국대)의 '〈화엄론절요〉의 구성과 논지 분석' 등이 발표된다. 토론자로는 김한상, 정유식, 강명희, 심준보, 박보람, 고승학 등이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낙산사 복원 · 수행연구 등 주제 다양 '눈길'

2016년 동국대 하반기 박사 논문 살펴보니

2016년 하반기에도 대표 종립대학 동국대에서 많은 불교박사들이 배출됐다. 동국대에 따르면 이번 학기에 불교관련 박사 학위 취득자는 모두 11명이었다. 박사학위 논문 주제는 교학, 역사, 미술 등 다양했다.

올해 박사 학위 논문 중 눈길을 끄는 것은 무문 스님(낙산사 총무)의 '낙산사 복원불사 연구-2005~2013년 복원불사를 중심으로'이다. 무문 스님은 2005년 4월 5일 화마로 소실된 낙산사의 8년여의 복원 과정을 살피고 불사의 의미를 찾았다.

무문 스님에 따르면 낙산사의 복원 지침은 △〈화엄경〉의 육상원융사상 구현 △낙산사 역사 계승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과 여법함 구현 △지역과 도량의 특성 반영 △비용 투입의 합리성 △다양한 계층의 불사참여 △지역주민과의 소통 및 화합 △관세음보살의 구세대비행 실천 등 8가지다.

이런 지침으로 나타난 것이 무산지역아동센터, 1318무산지역아동센터 설립 · 운영, 장학금 지급 사업 등이다. 이에 대해 무문 스님은 "대부분 사찰들이 가람 복원에는 유의하면서도 사찰의 기능적 원형 복원은 뒤로 미룬다"고 지적하면서 "낙산사 불사는 현대 사찰 중창 복원 불사의 귀중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원 스님은 박사 논문 '금오 태전선사 연구'를 통해 근현대 선지식 금오 태전 선사의 면목을 살폈다. 금오 태전 선사의 진면목으로 청원 스님은 상구보리의 수행과 하화중생의 면모를 짚었다. 이를 통해 선사의 간화선 수행과 정법

소실된 낙산사 복원 의미 고찰

금오 선사 진면목 살핀 연구도

서역 구법승 중심으로 역사 살펴

교리 · 수행 관련 논문 강세 보여

지향의 모습, 교단정화운동 등을 조명했다. 청원 스님은 "73년에 걸친 선사의 생애 가운데 대부분에 해당하는 58년 동안 선사는 선자(禪者)의 풍모를 보였다"면서 "나아가서 교단정화운동의 발의와 전개도 궁극적으로 출가 승려의 본분으로서 지계청정을 바탕으로 한 여법한 수행 환경을 확보하기 위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6년 하반기 불교 관련 박사학위자

학과/전공	법명·성명	논문제목
불교학과	법성 스님	원효의 번뇌론 체계와 일승적 해석
	우석 스님	동대사 · 정창원 소장 절략본 신라화엄사경 연구
	서수정	19세기 불서간행과 유성종의 덕신당서목 연구
	안유숙	유가사지론의 사마디 수행 연구
	정희경	지눌의 화엄론절요 연구
	신현승	〈성유식론〉의 말나식 연구
	계미향	한국 고대의 천축구법승 연구
선학과	무문 스님	낙산사 복원불사 연구
	청원 스님	금오 태전선사 연구
미술사학과	이분희	한국 석탑 불상 봉안 연구
중어중문학과	이연	소식과 이규보의 불교시 연구

성법 스님은 박사 논문 '원효 번뇌론 체계와 일승적 해석'에서 원효 이장 사상의 형성과정과 특징을 밝혔다. 성법 스님은 "원효는 독자적으로 번뇌의 해석 문제를 본격적인 실천 문제로 연결시켰다"면서 "이는 번뇌론을 단순히 개인 수행 문제가 아닌 사회적 실천의 문제로 재해석 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기신론소〉 이후의 저술에서 번뇌론을 논하는 주된 논조로 등장한다"고 설명했다.

역사, 미술사 관련 논문들도 주목할만 하다. 이분희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학예팀장은 '한국 석탑 불상 봉안 연구'를 통해 석탑에 봉안된 불상들의 기원, 봉안 형식, 양식적 특징 등을 살폈다.

이 팀장은 "한국 석탑에 봉안된 불상은 인도에서 기원해 중국을 거쳐 한국에 유입 · 발전한 국제적인 불교문화전파의 보편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석탑 봉안 불상은 진신사리를 대신해 봉안됐고, 극락왕생과 망자추선을 기원하는 성격을 지녀 한국만의 독특한 특성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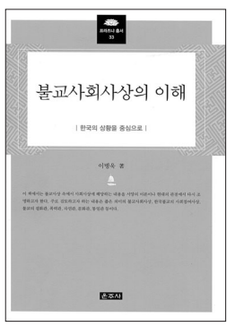
계미향 씨는 '한국 고대의 천축구법승 연구'를 통해 기록에 남아 있는 6~8세기 활동 한국 구법승 15명의 생애와 활동 영역, 구법루트, 사상 등을 총괄적으로 정리했다. 이를 통해 계미향은 신라 왕자 출신 구법승 무루의 안장처를 굉불탑, 하란산의 수행처는 방탑 유지임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굉불탑과 방탑이 폐허로나마 남아 있을 수 있던 것은 그곳이 서하왕국의 수도였으며, 서하왕실에 의해 건립됐기 때문"이라고 봤다. 신성민 기자

불교사상, 한국사회서 어떻게 이해되나

이병욱 박사 불교학 연구서 〈불교사회사상의 이해〉 발간

불교사회사상 이론 토대 고찰

평화 · 자연관 · 경제 · 통일 아울러



흔히 갖는 오해와 편견 중 하나는 불교는 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유는 자명하다. 한국 근현대사 안에서 불교는 사회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이런 까닭에 현대 한국불교는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중시하는 폐쇄적 종교로 오인된다.

하지만 불교는 혁명적 종교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당대의 모든 기득권과 관습을 타파했다. 스스로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했으며, 반대를 무릅쓰고 여성과 천민의 출가를 받아들였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에 내재된 사회사상을 시대적 관점으로 고찰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다.

동국대와 고려대, 중앙승가대 등에서 불교학을 강의하는 이병욱 박사가 최근 발간한 연구서 〈불교사회사상의 이해〉는 불교사상은 현대 한국사회에 어떤 유의미성이 있는지를 좇는다.

이 책은 불교사회사상의 이론적 토대, 한국에서의 변천 과정, 그리고 그 구체적 적용으로서 불교의 평화관, 폭력관, 자연관, 문화관, 통일관 등을 고찰하고 있다.

가장 먼저 이병욱 박사는 제도로서의 '불교의 사회사상'에 대해 살핀다. 그러면서 불교가 초기부터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를 추구했음을 밝힌다. 배경에는 공과 중도의 관점이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장에서는 한국 근현대 불교의 사회참여사상의 변화과정에 대해 진단한다. 신라의 의상, 고려의 의천, 조선의 서산과 사명, 근대의 만해 한용운, 현대의 민중불교운동, 도법과 법륜 등이 이에 해당한다.

3장에서는 평화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요한 갈퉁의 평화개념을 빌려와 불교의 평화관에 대해 살펴본다. 즉 폭력과 전쟁을 반대한다는 당위적 선언을 넘어서 군사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등에 대한 불교적 관점을 논한다.

경제지상주의와 속도지상주의에 매몰된 현대 한국 사회를 진단하는 6장도 책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이병욱 박사는 "현대적 관점 또는 오늘날의 문제의식에서 불교사상을 바라보는 것이 불교 사상 연구에서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면서 "이 책의 내용은 불교 사회사상이 한국이라는 토양에 어떻게 뿌리내릴 수 있는지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교적 통일관에 대해서도 제시한다. 이병욱 박사는 원효의 화쟁사상을 근거로 남북한의 사상을 통합하는 길을 모색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 한문아카데미 선발 · 일반연수생 모집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한문불전 인재 양성과 불교학 연구자들의 한문해독능력 배양을 위한 한문아카데미 2학기 선발 · 일반 연수생을 추가로 모집한다.

9월 1일 개강하는 한문아카데미는 '논어'(한재훈), '원전으로 본 불교교리'(원과 스님), '한문법'(안재철), '대승기신론'(은정희), '화엄경 게송'(반산 스님)의 강좌가 진행된다. 수업시간은 오후 6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다.

4학기제로 운영되는 한문아카데미는 매 학기당 16주(3~6월, 9~12월) 과정으로 이뤄진다. 선발연수생은 전 과목을 들을 수 있으며, 대학(대학원) 재학생은 수강료 30% 면제, 조계종 소속 승려는 전액 면제다. 일반연수생은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고 대학(대학원) 재학생과 조계종 소속 승려는 수강료 30% 면제다.

입학희망자는 9월 12일 이메일(nampyora@hanmail.net)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02)6713-5154

신성민 기자

공고

대한불교원효종

본 종단의 총무부장이었던 손영채(우석)이 총무원장으로 자칭, 일부 종도들과 도당하여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등에 총무원장 직인 위조하여 문서 남발, 허위사실 공고, 종단의 가사를 업체와 결탁 높은 조수의 대가사를 남발 하는 등 종단에 지대한 피해를 입혀왔으나, 2015가합359 총무원장 지위 부존재 확인 등 소송에서 총무원장으로 주장하고 있는 손영채(우석)의 총무원장 선출이 무효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2016.8.19판결) 이에 손영채(우석)이 2015.11.23자 이후 총무원장으로 한 모든 것은 무효임을 공고 하는 바 입니다. 손영채(우석)이 업체와 결탁하여 제작된 대가사는 종단에서 인정할 수 없으나, 발급된 승려증 사원등록증 주지 임명장은 갱신하여 드리고자 하오니 총무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8. 25

대한불교 원효종 임시종정 김윤철 향 운
대한불교 원효종 중앙종회의장 박병철 진 산